

주제발표 II

---

## 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실태에 관한 한·미·일 비교

전 흥 택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김 진 영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KDI 경제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 목 차

I. 머리말 .....	1
II. 우리나라의 학교 경제교육 실태 .....	4
1.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경제 과목의 위상 .....	4
2. 경제교육의 교과과정 체계 .....	10
3. 경제 교사의 공급과 경제학 지식 정도 .....	13
III. 외국의 학교 경제교육 실태 .....	18
1. 미국의 학교 경제교육 실태 .....	18
2. 일본의 학교 경제교육 실태 .....	26
IV. 맺음말 .....	36
참고 문헌 .....	45
<부록 1> 인천, 울산, 서울의 X, Y, Z 고교의 사회과 심화선택 과목 개설 현황 .....	47
<부록 2> 경제교육협의회(NCEE: 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	48

# I. 머리말

-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시대의 경쟁력의 원천은 창조적 지식을 갖춘 인적자본의 확충에 있으며, 이러한 인적자본은 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 양성됨.
  - 산업화 시대를 열어 가는데 있어서 보통교육은 대량생산 공정에 필요한 표준화된 인력 양성에 큰 공헌을 하였음.
  - 그러나 지식경제 시대는 산업화 시대와 달리 지식과 이에 기반을 둔 혁신이 추진력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지식경제 시대에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은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고 연구·개발을 선도해야 하며, 중등교육도 문맹퇴치 수준을 넘어서서 고등교육과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지식경제시대에서의 직장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지식기반 시대의 경제교육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음.
  - 예컨대 IT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한편 지식경제발전에 따른 지식격차 확대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 등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 또한 일부에서는 시장경제체제를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경제’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나 시장경제가 제도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상당히 정교한 규칙이 요구됨.
  - 예컨대 주식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나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고 기업지배 구조를 개선하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구축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정교한 규칙을 만들고 합리적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공통분모로서 경제원리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요구됨.

- 국가적 차원의 경제정책 결정은 물론 기업 차원의 노사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시장경제의 주요 구성원들인 정책결정자, 경영자, 노조간부,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가 긴요
- 이와 같은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교육당국 외에 재무부, 중앙은행 등 여타 공공부문과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의 민간부문에서 학교 경제교육은 물론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경제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NCEE(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가 학교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교육·연수, 학교 경제교과영역 설계의 표준 제정, 경제교육 학습자료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 일본의 경우에도 내각부가 주축이 되어 2005년을 “경제교육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경제교육 서미트를 개최하여 ‘경제교육 추진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였고, 경제교육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초 당시 경제기획원에 경제교육 담당 조직을 설치하여 사회적 차원의 경제교육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국민경제제도연구원(현재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은행, 전경련 등에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2000년대 들어와서는 재정경제부, 통계청,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은행, 전경련, 대한상의, 각종 금융기관은 물론 많은 시민단체들도 경제교육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음.
- 최근 학교 경제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논쟁, 그리고 학교 경제교육 과정의 내용 축소 및 수업시간 단축 우려 논란 등이 제기된 배경도 이와 같이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 기인함.
  - 각종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시장에 대한 낮은 신뢰도, 반기업 정서와 개방에 대한 거부감 등은 경제교육, 궁극적으로는 학교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
- 경제교육의 기본은 학교 경제교육이므로 학교 경제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또 적절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학교 경제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나 자료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임.

- 또한 외국의 상황을 참고하려 하여도 국내에 비해 조사·연구가 더욱 미흡한 상황임.
- 본 논문의 목적은 우선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미국, 일본의 경험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학교 경제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자료의 제약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학교 경제교육 실태를 미국, 일본과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 경제교육 실태를 조사하였음.
  - 첫째, 교육과정에서 경제 과목의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과 과목 가운데 경제 과목의 비중, 경제 과목의 이수 학생 비율 등을 추정하고자 하였음.
  - 둘째, 학교 경제교육 체계가 어떻게 편제되어 있으며, 경제교육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셋째, 경제 담당 교사들의 공급과 경제학에 대한 지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II. 우리나라의 학교 경제교육 실태

### 1. 중·고등 교육과정에서 경제 과목의 위상

#### (1)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경제과목의 중요성

- 우리나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합한 12년의 학교 교육과정은 1~10학년(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11~12학년(고등학교 2~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두 부분으로 구분됨.
  - 따라서 경제교육의 위상도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음.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경제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학교 1학년 즉, 7학년부턴의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중학교 1학년부턴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똑같이 받게 되므로 경제과목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는 7~10학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수업시간 중 경제과목이 차지하는 비중 또는 사회과 수업시간 중 경제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임.(표 1 참조)
  - 학생들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7~10학년을 마치는 동안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 12개 과목 총 4,692시간<sup>1)</sup> 수업을 받게 되며 이 중 사회과 수업은 총 510시간임.
- 사회과 수업 510시간 중 국사가 168시간으로 가장 많으며 지리 133시간, 일반사회 121시간, 세계사 88시간의 순서임.
  - 일반사회는 정치·경제·법·사회문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업시간은 사회문화 20시간, 정치(법 포함) 및 경제는 각각 11시간으로 나타났음.

1) 1시간의 수업은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을 원칙으로 함.

〈표 1〉 국민공통과정 사회 과목의 단원 구성 및 수업 시간

	합 계		지 리		세계사		국 사		일반사회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사회 소개		경 제	
	단원	수업 시간	단원	수업 시간	단원	수업 시간	단원	수업 시간	단원	수업 시간	단원	수업 시간
7학년	10	102	7	71	3	31	-	-	-	-	-	-
8학년	11	102	-	-	4	37	4	37	3	28	-	-
9학년	13	136	2	21	-	-	6	63	5	52	2	21
10학년	16	170	4	41	2	20	6	68 <sup>1)</sup>	4	41	1	10
<b>합계</b>	<b>50</b>	<b>510 (100.0)</b>	<b>13</b>	<b>133 (26.1)</b>	<b>9</b>	<b>88 (17.3)</b>	<b>16</b>	<b>168 (32.9)</b>	<b>12</b>	<b>121 (23.7)</b>	<b>3</b>	<b>31 (6.1)</b>

주: 1) 국사로 지정된 시간은 68시간.

- 2) 중학교는 국사시간을 별도 배정 받아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목 총 수업시간 내에서 운영하는 체제
- 3) 오영수(2005)의 <표 2>를 재인용(p.33)하고 국사 과목을 추가하여 재계산
- 4) ( )안은 백분율 비중임.

□ 이를 종합해 보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7~10학년 총 수업시간에서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0.7%(31/4,692)이며, 사회과 총 수업시간에서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6.1%(31/510)임.

- 즉 사회과 수업시간 중 일반사회의 비중이 1/4인데, 일반사회 중 경제의 비중이 1/4이므로 사회과 총 수업시간 중 경제의 비중은 1/16에 불과<sup>2)</sup>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을 받는 시간은 같은 사회과 과목인 지리의 1/4, 세계사의 1/3에 미치지 못함.

□ 31시간 수업은 1주에 1시간씩 2학기 또는 1주에 2시간씩 1학기 학습에 해당하는 데, 고등학생의 약 3/4 정도가<sup>3)</sup>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의 31시간 외에 더 이상의 경제학습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경제수업 시간 수는 사회생활에서 합리적 사고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제지식을 습득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sup>4)</sup>

- 지리와 세계사도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소양을 쌓는데 필요한 교육내용임

2) 중학교 과정만을 분석할 경우, 경제 과목이 차지하는 단원 비중은 5.9%에 불과하였으며, 수업 시간 비중은 6.2%로 나타났음. 이에 비해 지리 과목의 수업 시간은 27.1%, 세계사 과목의 수업시간은 20%로 나타나 경제 과목의 수업 시간 비중에 비해 4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3) 8쪽의 <표 3>을 참조.

4) 성인이 되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경제 분야의 소양을 쌓기 위해 최소 어느 정도의 경제수업 시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학문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에 틀림없지만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경제에 비해 4배와 3배 이상의 수업시간을 할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경제과목의 중요성

□ 11, 12학년 즉 고등학교 2, 3학년에 해당하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사회과 심화선택은 9개 과목이며 고등학교의 과목 개설 숫자는 해당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짐(부록 1 참조).

○ 사회과 심화선택 과목은 한국지리(136시간), 세계지리(136시간), 경제지리(102시간), 한국 근·현대사(136시간), 세계사(136시간), 법과 사회(102시간), 정치(102시간), 경제(102시간), 사회문화(102시간)임.

○ 심화선택 과목 중 지리 관련 과목은 3개, 역사 관련 과목은 2개인데 비해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는 각각 1개임.

□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선택하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과목별 수업시간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경제과목의 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는 경제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학생규모임.

○ 각 학년의 학생 수는 매년 달라지므로 매년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경제과목 수강자 비율이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경제과목의 위상을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라 할 수 있음.<sup>5)</sup>

□ <표 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반계 고교생 가운데 심화선택 경제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2004년에 103,305명, 2005년에 104,731명으로 나타났음.

□ <표 2>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주의가 요구됨.

○ 첫째, 문과학생은 복수의 사회과 심화과목을 선택하므로 각 과목을 듣는 학생수의 단순합산(총계 숫자)은 의미가 없음.

○ 둘째, 심화선택 과목은 2, 3학년 학생만 수강하는 과목임.

○ 셋째, 어떤 학교는 2학년에 경제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어떤 학교는 3학년에

5) <표 3>에 의하면 2005년에 전국의 1,382개 고등학교 중 575개교만 심화선택 경제를 개설하고 있으므로 동 지표는 575개 학교 학생들의 선택결과이며, 나머지 학교 학생들은 선택의 기회가 없었음. 그러나 575개 학교에서도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은 개설된 과목을 선택의 여지없이 수강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동 지표는 고등학생(수요자)이 아닌 고등학교(공급자)의 선택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음.

경제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므로 이 표에서 2004년과 2005년에 심화선택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2학년과 3학년으로 구성됨.

<표 2> 일반계 고교생들의 사회 과목 선택 추이

선택과목	학생수(명)				증감률 2005
	2004	순위	2005	순위	
한국지리	215,870	3	235,690	2	9.2
세계지리	46,727	8	43,282	8	-7.4
경제지리	15,120	9	19,459	9	28.7
한국근현대사	263,461	1	281,039	1	6.8
세계사	77,425	7	72,045	7	-7.0
법과 사회	84,949	6	82,416	6	-3.0
정치	93,072	5	101,594	5	9.2
경제	103,305	4	104,731	4	1.4
사회문화	218,738	2	227,835	3	4.2
총 계	1,118,667		1,167,654		4.3
학교수 총수	1,351		1,382		-
경제선택 학교수	538		575		-

주: 1) 사회과목 선택 학생수에 대한 통계는 2004년부터 집계, 따라서 2003년 이전에는 과목별 통계가 없음.

2) 총계는 선택과목 학생수를 단순 합계한 수치

3) 동 자료의 조사 시점은 해당연도 4월 1일 기준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문교통계연보, 2004/2005.

- 위와 같은 자료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심화선택 과목으로서 경제과목을 수강하는 규모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음.

□ 2005년도 고교졸업 예정자(정확하게는 2006년 2월 졸업) 중 심화선택 경제과목 수강자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표 2>의 2005년 경제과목 선택 학생 중 2학년을 제외한 다음 2004년에, 즉 2학년 때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더해야 함.

- 2004년 경제과목 수강자의 2학년과 3학년의 구성비가 2005년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2005년 졸업예정자 중 경제과목 수강자 수는 최소 103,305명 최대 104,731명임.<sup>6)</sup>
- 따라서 2005년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심화선택 경제과목 수강 비율은 25.8%~25.9%임.(표 3 참조)

6) 경제과목 수강자 중 3학년의 비율을  $x$ 라 하면 2005년 졸업예정자 중 경제과목 수강생 수는  $104,731x + 103,305(1-x)$ 이며  $x$ 는 최소 0, 최대 1임.

〈표 3〉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심화선택 경제과목 수강비율 추정

	2004	2005
졸업예정 3학년 학생수 (A)	399,013	405,715
경제과목 수강자 <sup>1)</sup>	103,305	104,731
졸업예정자 중 경제 수강자 (B)	-	103,305~104,731
졸업예정자 중 경제 수강비율 (B/A)	-	25.8%~25.9%

주: 1) 해당년도에 경제과목을 수강한 2학년 및 3학년 학생 수.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문교통계연보, 각년도.

□ 사회과 과목별 선택 학생수에 대한 통계는 2004년부터 집계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 중 심화선택 경제과목 수강자 비율이 2005년 이전에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7차 교육과정을 배운 학생들의 경우 동 비율이 2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됨.

- 따라서 7차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1/4은 1주일에 3시간씩 2학기(약 34주)동안 독립된 경제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추정됨.
- 중·고등학교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경제학습에 할당된 시간이 총 31시간에 불과하여 공통과정만으로는 사회생활에서 경제 관련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사고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제 분야 소양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할 때,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심화선택 경제과목 수강비율이 25%라는 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임.)

□ 한편 2005년 문교통계연보에 따르면(표 2 참조) 경제 과목을 개설한 학교수가 575개로 전체 학교수 1,382개의 약 41.6%에 불과함.

- 이는 약 60%의 학교가 경제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경제과목을 선택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과목을 개설하는 학교 수가 늘어날수록 고등학교 졸업자 중 경제과목 수강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

□ 수능시험 사회탐구영역 과목별 응시자 현황에서도 사회과 심화선택 과정에서 경제과목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음.(표 4 참조)

7)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이과 학생들을 위해 생활경제(4단위, 1주일에 2시간씩 2학기 학습)를 개설하고 있으나 생활경제 교과 내용(2005년 수강자 45천명 정도)을 감안할 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 2006년 사회탐구영역 응시자만을 대상으로 한 과목별 응시비율은 사회문화가 가장 높은 비율(70.5%)을 차지하였고, 이어 한국지리(66.4%), 한국 근·현대사(53.9%), 윤리(49.5%) 순서로 나타났음.<sup>8)</sup>
  - 이는 <표 2>에서 보았던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심화선택 과목 수강 학생수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즉, 일반계 고교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3대 과목은 한국 근·현대사, 한국지리, 사회문화의 순서이며 수능 사회탐구과목 중 선택이 많은 3대 과목은 사회문화, 한국지리, 한국 근·현대사의 순서임.
-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의 대부분은 한국 근·현대사, 한국지리, 사회문화 과목을 개설<sup>9)</sup>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능 사회탐구과목으로 이 세 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표 4> 사회탐구 영역 선택과목별 응시자 현황(2006년 수능)**

과목명	응시자 수(명)	응시 비율1)	응시 비율2)	응시 비율3)
윤리	158,584	12.9	49.5	30.6
한국 지리	211,526	17.1	66.1	40.8
세계 지리	33,346	2.7	10.4	6.4
경제 지리	47,784	3.9	14.9	9.2
한국 근·현대사	172,706	14.0	53.9	33.3
국사	100,189	8.1	31.3	19.3
세계사	32,816	2.6	10.3	6.3
법과 사회	62,584	5.1	19.5	12.1
정치	102,487	8.3	32.0	19.8
경제	86,666	7.1	27.1	16.7
사회문화	225,633	18.3	70.5	43.5
<b>합 계</b>	<b>1,234,321</b>	<b>100.0</b>	<b>320,209</b>	<b>518,395</b>

주: 1) 전체 응시자 단순합계 중 해당 영역의 비율이나 한 학생이 여러 사회 과목을 선택(사회탐구 가운데 4과목을 응시한 학생 비율은 87.4%로 집계)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함.

2)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만을 대상으로 한 비율

3)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영역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비율

자료: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였음.

8) 수능 사회탐구 영역에는 심화선택 9개 과목 외에 국사와 윤리가 포함됨.

9) 교육통계연보(2005)에 따르면, 한국지리 개설학교 수는 전체 학교 수 가운데 82.2%, 한국 근·현대사는 83.8%, 사회문화는 84.5%로 나타났음.

- 한편, 학생들이 수능 사회탐구영역에서 관련 과목을 중복 선택(예를 들어, 3개의 지리 과목 중 대개 1개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 지리 과목(한국, 세계, 경제지리)은 도합 91.4%의 학생이 선택하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인문계 학생이 지리를 학교에서 배운다는 사실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sup>10)</sup>
  - 마찬가지로 한국 근·현대사를 택할 경우, 국사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사 관련 과목은 85.2%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이렇게 보면 수능 사회과목 응시비율이 높은 순서는 지리, 한국사, 사회문화, 윤리의 순서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현상은 <표 2>의 고교생들의 사회과목 선택 비율에서 보듯이 지리, 한국 근·현대사, 사회문화의 순서와 동일
  - 한편, 경제 과목은 수능 과목 가운데 법과 사회, 세계사 보다 높은 응시비율을 보여 주고 있지만, 과목의 성격상 법과 사회는 정치 과목과 관련 되어 있다는 점에서 거의 꼴찌에 가까움.

## 2. 경제교육의 교과과정 체계<sup>11)</sup>

### (1) 7차 교육과정과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 우리나라의 사회과목은 국민공통 과정과 심화선택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지리, 세계사, 국사, 일반사회 과목을 학년별로 분산시켜 가르치고 있음.

10) 참고로 2006년도 영역별 응시자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영어)	탐구			제2외국어/한문
				사회	과학	직업	
인원(명)	551,554	498,785	549,544	320,209	198,186	29,215	96,962
				547,610			

- 11) 교육과정 체계로서 경제교육에 대한 분석은 많은 자료가 있음. 경제 영역을 다루는 교과서에 대한 분석은 주로 교과 기술내용에 관한 것으로 부정확한 서술 및 해석, 부적절한 사례 제시, 윤리 지향적 기술, 반시장적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교과서 내용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KDI 경제정보센터(2005),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경제영역 내용 검토 보고서', 재정경제부 용역보고서와 교과서 포럼(2005), '중·고등학교 <경제> 관련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 제2차 심포지엄을 참조. 본 분석에서는 교과서 내용보다는 학년간 연계성, 교육과정 체계의 개편 등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음.

- 이러한 체제하에서 중학교 입학 후 3학년에 들어서야 경제 내용(독립된 경제 과목이 아님)을 접할 수 있으며, 미시경제 개념이 주요 내용
  - 고등학교 1학년에 학습하는 경제 내용은 거시경제와 국제경제
  - 반면,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의 심화선택 과목으로 독립된 경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미시·거시·국제 경제개념을 포괄적으로 학습하는 체제
-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약 25%만이 선택과정으로서 경제과목을 수강하며 약 75%는 국민공통 과정의 경제 내용만을 학습한다는 것임.
- 그렇기 때문에 중3 및 고1 과정에서 배우는 경제 내용은 상식 차원에서 생활에 필요한 경제 지식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하나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과과정상 연계성과 완결성에 다소 미흡한 면이 있음.<sup>12)</sup>
    -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의 경제 내용 가운데 저축, 금융투자, 개인 신용을 비롯하여 금융부문을 다루지 않고 있음.
    - 고등학교 국민공통 과정 사회 교과서 가운데 경제 내용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인적자본과 기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역할이 빠져 있음.
    - 고등학교의 심화선택 과목인 '경제'가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중학교 및 고1 국민공통 과정은 오히려 부족해 조절이 필요한 점
    - 경제 내용을 다루는 모든 교과서에서 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금융부문의 기술이 부족한 점
- 이보다 더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향후 교육과정 『사회과정 개정 시안』에 따르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이 현재보다 더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

12) 재정경제부·KDI 경제정보센터(2005).

〈표 5〉 경제영역을 다루는 사회 및 심화선택 경제 과목의 단원별 내용

국민공통과정		심화선택과정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3학년
민주시민과 합리적 해결 경제의 의미 경제문제와 합리적 선택	-	경제생활의 이해와 경제문제 해결 경제생활의 의미 경제문제의 발생과 해결 경제체제의 변천과 한국경제미래
경제체제의 변천 과정 경제활동의 변천과정 시장경제체제 미래사회의 경제생활	-	시장과 경제활동 시장원리와 시장가격 기능 시장가격의 변동 시장기능의 한계와 보완 대책
민주시민의 경제적 구실 소비자로서 역할 생산자로서 역할 국가구성원으로서 역할	-	경제주체의 합리적 선택 바람직한 소비 효율적인 기업경영과 기업윤리 책임 있는 재정운영
-	국민경제와 합리적 선택 국민소득이란 무엇인가 경제수준과 경제성장 저축과 경제성장 기업 활동과 경제성장	국민경제의 활동과 경제변동 국민경제의 흐름과 변화 국민경제순환, 국민경제지표 경제성장과 발전, 성장과 분배 경제성장과 안정화 대책 물가안정과 고용증대, 경기변 동의 양상, 재정·금융 정책
-	현대경제문제와 해결방안 우리사회의 경제문제 물가와 물가의 변동 물가안정 대책	세계시장과 한국경제의 미래전망 국제거래와 경쟁력 통일한국 경제의 미래 인류공동체와 경제협력
-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과 협력 생활 속의 국제경제 국제거래의 발생 국가경쟁력	세계시장과 한국경제의 미래전망 국제거래와 경쟁력 통일한국 경제의 미래 인류공동체와 경제협력

자료: 조화룡 외(2002), 『중학교 사회 3』, 금성출판사.  
최병모 외(2001), 『고등학교 사회』, 대한교과서(주).  
조도근 외(2002), 『고등학교 경제』, (주)두산.

- 『사회과정 개정 시안』에서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영역을 함께 다루고, 고등학교 1학년은 사회과 공통의 통합 주제(strand)에 의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내용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 KDI 경제정보센터(2006)는 이와 같은 중·고등학교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 '개정시안'이 채택될 경우 미시경제 영역만을 학습하던 중학교 3학년 사회과 수업 시간에 거시경제 영역까지 학습하게 되어 수업시간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학습내용이 두 배로 늘어나는 등 수업내용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또한 주제 중심으로 통합적 사고를 고취한다는 취지를 인정한다하더라도 과연 현실적으로 교사의 능력과 교과서 등 학습 자료가 이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sup>13)</sup>

### 3. 경제교사의 공급과 경제학 지식 정도

□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의 비중은 전체 교사 가운데 11.1%를 차지

○ 한편, 일반사회 교사의 비중은 5.4%(2003)에 불과<sup>14)</sup>

○ 중학교의 사회과 교사 가운데 일반사회 교사 비중은 55.7%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 비율이 41.2%로 낮아져 10% 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가운데 역사 교사는 35.9%, 지리 교사는 22.9%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중학교 사회과 교사 가운데 역사 교사 비중은 28.6%, 지리 교사 비중은 15.7%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다시 말하면,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사회과 교사 중 역사와 지리 교사가 일반사회 교사에 비해 많다는 것임.

- 이와 같은 사회과 교사의 전공별 구성 비중의 중·고등학교 간 차이, 즉 고교 사회과 교사 중 지리 및 역사 교사의 비중이 중학교의 그것보다 높은 것은 고교에서 중학교 보다 사회과목 중 지리 및 역사 과목의 비중이 높은 것과 수능 시험에서 지리 및 역사의 응시 비율이 경제 과목을 포함한 다른 일반사회 과목보다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sup>15)</sup>.

13) 미국에서도 경제가 원리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비해 다른 사회과목들은 실제지식 습득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경제 분야는 통합형 수업이 곤란하다고 지적됨(28쪽 참조).

14) 2003년 통계연보는 일반사회, 지리 및 역사 교사수를 제시하고 있으나, 2004년 이후는 세 과목을 합친 정보만을 제공

15) 중학교 과정에서 일반사회과 교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비중이 고등학교에서는 오히려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일반사회 전공자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학교 교사가 많이 배출되고 역사나 지리를 전공한 교원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교사가 많이 배출된다는 것을 의미

〈표 6〉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수

	2003		2004	2005
	교사 수	비율 (%)	교사 수	교사 수
중학교 전체(A1)	99,717		101,719	103,835
사회과(B1)	9,919	100.0	10,410	10,399
(일반사회, C1)	(5,525)	55.7	-	-
(역사, D1)	(2,835)	28.6	-	-
(지리, E1)	(1,559)	15.7	-	-
고등학교 전체(A2)	76,666		77,835	79,158
사회과(B2)	9,888	100.0	10,581	10,991
(일반사회, C2)	(4,077)	41.2	-	-
(역사, D2)	(3,551)	35.9	-	-
(지리, E2)	(2,260)	22.9	-	-
합 계(A=A1+A2)	176,383		179,554	182,993
사회과 교사(B=B1+B2)	19,807		20,991	20,230
B/A	(11.0)		(11.7)	(11.1)
일반사회 교사(C=C1+C2)	9,602		-	-
C/A	(5.4)			
역사 교사(D=D1+D2)	6,386		-	-
지리 교사(E=E1+E2)	3,819		-	-
사회과 해당과목별 교사 비중	100.0			
일반사회(C/B)	48.5			
역사(D/B)	32.2			
지리(E/B)	19.3			

주: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것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문교통계연보, 각년도.

□ 경제를 담당할 수 있는 교사가 어느 정도 공급되는지는 자료 부족으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간접증거를 통해 볼 때 매우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에 전국의 일반계 고등학교 1,382개교 중심화선택 과목으로 경제를 개설한 학교는 575개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807개교 대부분은 독립된 선택과목으로서 경제를 담당할 수 있는 교사가 없으므로 추측됨.

〈표 7〉 고교 사회과·과학과 교사 중 3과목 이상 담당 교사 비율

시도명		3과목 이상 담당 교사 현황		사회과·과학과 담당 총교원수(명)
		교원수(명)	비율(%)	
시	서울	45	1.1	4,235
	광주	3	0.4	742
	인천	26	2.2	1,192
	부산	60	3.7	1,613
	대전	18	2.5	733
	대구	48	4.0	1,215
	울산	7	1.2	572
도	경기	89	2.0	4,427
	강원	<b>235</b>	<b>27.0</b>	<b>871</b>
	전북	41	6.6	623
	전남	128	11.8	1,084
	경북	107	8.1	1,327
	경남	152	9.2	1,648
	충북	48	7.4	652
	충남	63	6.4	987
	제주	20	7.9	253
<b>합 계</b>		<b>1,090</b>	<b>4.9</b>	<b>22,174</b>

주: 이주호, 국정감사자료, 2004, 홈페이지 참조.

- 농어촌 및 읍·면지역의 많은 학교는 학교 규모가 작은 관계로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한 명의 사회과 교사가 3과목 이상 담당하는 교사 비율이 높은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의 경우(표 8 참조) 심화선택 경제과목 개설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학교가 많을 것이며 국민공통 기본교육 과정의 경제 분야 학습도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임.
- 한편 경제 담당 교사의 경제 분야 지식과 소양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의 하나로 경제 담당 교사의 대학 전공을 들 수 있는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 담당 교사의 약 11.5%만이 경제를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 담당 교사의 전공별 비중을 보면 일반사회를 전공한 경제 교사들이 가장 많았으며(47.1%), 지리·역사를 전공한 비율(13.1%=9.1+4.0)이 경제를 전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일반사회 전공의 경우, 경제 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학 시절 최소한 경제학을 1과목 이상을 수강한 비율은 60% 정도<sup>16)</sup>에 이를 가능성을 있음을 시사

〈표 8〉 경제교육 고교 교사의 대학 전공과목<sup>1)</sup>

전공과목	일반 사회	경제 <sup>2)</sup>	지리	교육	행정	역사	법학	사회학	기타	합 계
교원수	352	86	68	43	42	30	29	24	73	747
비 중	47.1	11.5	9.1	5.8	5.6	4.0	3.9	3.2	9.8	100.0

주: 1) 박명호(2005), '청소년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p.15에서 재인용하였음.

2) 경제학 전공은 복수전공, 부전공을 인정한 수치임.

□ 그러나 일반사회 전공 교사들이 대학 시절 경제학을 폭넓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는 크게 제약되어 있는 실정임.

- 박명호(2005)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일반사회 담당 교원 양성)의 개설과목 가운데 경제는 필수 과목으로 '경제와 사회'가 있을 뿐, 25개 선택과목 가운데 경제 관련 과목은 5개에 불과함.
- 한국교원대학의 경우, 경제와 사회(I)과 (II)가 필수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28개의 선택과목 가운데 경제 관련 과목은 5개 과목만이 설치되어 있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경우와 비슷함.

□ 이처럼 일반사회과 교사 대부분은 경제학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학교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님.

16) 이는 지리, 역사, 교육 등 경제학과 관련성이 없는 전공 학생의 경우 경제과목을 거의 수강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경우 일반사회 47.1%와 경제 11.5%를 합산한 58.6%가 최소한 경제학을 한 과목 이상 수강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교사 임용 후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다양한 직무교육을 비롯하여 교사연수제도를 활용하여 교사들이 경제학 지식을 추가적으로 습득하지만 현행 연수제도만으로는 일반 사회과 교사 대상의 경제연수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음.<sup>17)</sup>
- 따라서 학교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담당 교사들에 대해 체계적인 경제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 한편 현재 경제과목을 심화선택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전체 고등학교의 50%를 상회하므로 경제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사회과 교사들도 체계적인 경제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과목 개설 기회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17) 실업계 고등학교의 일반사회과 교원수는 2003년 1,177명으로 조사되어 사회과 교사 가운데 44.2%(역사 38.1%, 1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일반사회과 담당 교원들의 개략적 수치(2004년 이후 정확한 통계를 밝히지 않기 때문)는 1만 1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2003년의 경우 10,777명)됨.

### Ⅲ. 외국의 경제교육 실태

#### 1. 미국의 학교 경제교육 실태

(1)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의 위상

가. 교육과정 중 경제과목의 중요성

□ 미국은 연방 정부가 교육행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각 주 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sup>18)</sup>

○ 따라서 미국의 교육과정과 학교구조는 주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제교육 시스템을 일반화하기 어려움.

- 각 주는 주 교육법에 따라 주요 과목에 대한 학습 기준을 정하며, 각 영역 및 학년별로 성취할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학습 기준은 각 주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가이드라인 역할

- 해당 주 교육청에서는 해당 주의 학습기준을 근거로 지역상황(인구밀도, 인종,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역별, 학년별 세부 학습 기준을 정하며, 이는 주 교육청의 교육과정과 각 학교의 교과과정 편성에 가장 중요한 기준

□ 이러한 기본 여건 하에서 경제교육은 학교와 민간단체의 긴밀한 협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임.

○ 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NCEE), National Endowment for Financial Foundation,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Foundation for Teaching Economics 등 경제교육을 위한 비정부기구들이 큰 역할을 담당

---

18) 교육인적자원부(2005),■■■미국의 경제교육현황■■■, 해외교육 정보 자료집. 보다 자세한 주별 학습 기준에 대한 자료는 NCEE(2005), 'Survey of the State: Economic and Personal Finance Education in Our Nation's School in 2004', March.

- 특히 연방법<sup>19)</sup>은 경제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NCEE(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sup>20)</sup>가 교육과정 및 교사연수 프로그램 마련 등의 경제교육 활동을 하도록 기금을 지원
  - 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은 독립교과의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타 교과의 일부로서 또는 타 교과와 융합되어 이루어짐.
- \* 경제과목이 독립되어 있는 과목은 주로 경제, 자유기업, 소비자경제교육 등이며, 경제과목이 융합되어 있는 교과는 미국사, 세계사, 시민(Civics)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표 9>에 따르면 2004년 49개 주에서 주 수준에서 학습 기준을 설정하고 이 가운데 38개는 학습 기준의 이행을 명시하고 있으며, 코네티컷 주와 매사추세츠 주는 평가를 통해 학습기준이 이행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49개주 가운데 15개 주<sup>21)</sup>는 경제교육 과정 이수를 고등학교 졸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9> 미국 고등학교의 경제학 과목에 대한 학습기준의 변동<sup>1),2)</sup>**

구분	1998년 조사	2000년 조사	2002년 조사	2004년 조사
학습기준 설정	38개주 (76%)	48개주 (DC 포함)	48개주 (DC 포함)	49개주 (DC 포함)
학습기준 이행 명시	28개주	36개주	33개주	38개주
수업과목으로 요구	16개주	16개주	17개주	17개주
과목 이수율 의무화	13개주	13개주	14개주	15개주
시험 의무화	25개주	22개주	27개주	26개주

주: 1) NCEE(2005), ■■■Survey of the States■■■ March.

2) 소비자 경제교육 등과 같은 경제 관련 과목은 포함되지 않음.

19) Education for Democracy Act(US Code-Title 20-Chapter 70-Subchapter II-Part C)

20) NCEE에 대해서는 <부록 2>를 참조

21) Alabama, California, Florida, Georgia, Idaho, Kentucky, Louisiana, New Hampshire,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임.

- 미국에서 경제학은 21세기를 대비한 개정 교육법<sup>22)</sup>에 의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4학년(K-12)<sup>23)</sup>까지의 학생들이 배워야 할 9개 핵심과목 중 하나로 선정<sup>24)</sup>
  - 9대 핵심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시민과 정부(civics and government), 경제학, 예술, 역사, 지리로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상 사회 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은 경제학, 시민과 정부, 역사, 지리 네 개 과목임.
  -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교육과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주 교육위원회에 의해 결정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정(대학 진학 또는 직업반)에 따라 이수하는 과목이 다름.
    - 나아가 학생들은 자신의 이수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 등을 고려하기도 하며, 이수 과목 선택 시 커리큘럼 카운슬링 교사와 협의 하여 과목을 선정하고 있음.
- 따라서 특정 주가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경제교육 내용을 파악할 수밖에 없음.
  - 오영수(2005)에 따르면, 오레곤(Oregon) 주에서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과목 별 이수 학점은 <표 10>과 같음.
  - 그런데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영역별로 최소한 총 14단위(140학점)를 이수해야 함.
    - 영어 4단위, 수학 3단위, 과학 2단위, 사회 3단위, 외국어 2단위로 총 14단위와 기타 대학에서의 수강에 필요한 사전 이수 과목(컴퓨터 과학, 미술, 직업기술 등)임.
    - <표 10>의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학점 이수와 대학 진학을 위한 학점 이수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회과목의 경우에는 두 경우 모두 30학점으로 차이가 없음.

22) Goal 2000: Educate America Act of 1994.

23) 미국의 교육제도는 K-12로 구분하고 있는데, 1-5까지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수준, 6-8까지는 중학교 수준, 9-12까지는 고등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됨.

24) 이 논의는 사회 과목의 편성과 이수해야 할 학점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오영수(2005)를 참조하였음.

〈표 10〉 고등학교(K9-K12) 졸업에 필요한 과목별 이수 학점: 오레곤주

과 목	학점	비 고
Language Art	35	읽기, 쓰기, 문학, 어학 등
Social Studies	30	지리, 역사, 경제, 시민과 정부
Mathematics	20	대수, 기하, 삼각함수, 미적분, 확률통계 등
Science	20	생물, 화학, 지구과학, 물리, 천문학
Physical Education	10	각종 구기, 육상, 에어로빅 등
Health	10	보건학, 아동심리, 헬스 등
Humanities	5	인문학(외국어, 예능, 취업과목에서의 초과학점으로 대체 가능)
Applied Techniques(취업대비) Fine Arts(미술, 디자인, 컴퓨터 등) Foreign Languages	20	취업대비 과목은 상업, 아동교육, 디자인, 요리, 기타 기술 등
Other Subjects	80	기타 자유 선택 과목
<b>합 계</b>	<b>230</b>	

자료: 오영수(2005), p.39에서 재인용.

- 오레곤 주의 경우, 사회 과목 가운데 역사, 지리, 경제, 시민과 정부는 모두 동일한 비중인 10학점<sup>25)</sup>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기타 자유선택 과목이 80학점에 이르고 있어 선택 폭이 넓음.
  - 이러한 체제 하에서 경제 과목은 9-10(우리나라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함) 과정에서 경제 과목을 선택할 기회가 있으며, 11-12(고등학교 2, 3학년에 해당) 과정에서 고급과정(Advanced Placement)을 수강<sup>26)</sup>할 수 있음.
  - 오레곤 주의 경우, 경제 과목은 필수과목이 아니며 선택과목의 하나임.

나. 고등학교 졸업생 중 독립된 경제과목 이수자 비율

- 미국에서 경제교육 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경제 과목 수강 비율을 보면, 1982년 24%에서 1998년에는 46%로 크게 증가하였음.<sup>27)</sup> (표 11 참조)

25) 여기서 10학점은 1년 2학기(170시간)로 운영되는 경우, 1년간 수업을 수강하는 것으로 연간 최소 130시간을 수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정규 과목은 1학기당 5학점이 되는 셈이며, 이를 우리나라의 단위수와 비교할 경우, 7.6단위(130/17)에 해당됨. 한편, 미국의 단위 개념과 학점간의 관계는 1단위=2과목(2학기)=10학점으로 계산할 수 있음.

26) 總성적이 3.0 이상, 사회 과목에 대한 시험성적이 4점 이상(6점 만점) 되어야 등록이 가능

27) Walstad B. William & Ken Rebeck(2000), 'The Status of Economics in the High School Curriculum',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Winter 2000.

- 이는 1982년 9개 주가 경제학 과목 이수를 의무화한 이래 다른 주들도 추가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해 2004년 현재 15개 주에서 경제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데 기인
- 특히 학생 숫자가 많은 4개 주가 의무화를 채택하였던 것이 수강비율 급증 요인임.
  - 공립학교 학생수(미국 전체의 1/3을 차지하는 규모)가 많은 California, Texas, New York, Florida 등 4개 주에서 고교에서 경제학 이수를 의무화<sup>28)</sup>

〈표 11〉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제과목 수강 비율(%)

구 분	1982	1987	1990	1994	1998
경제학 과목	24.1	29.4	43.6	43.9	45.8
기초 수준	23.9	28.9	43.4	42.9	-
대학 수준	0.4	0.5	0.2	1.0	-
경제 관련과목	35.5	39.3	39.5	35.0	N.A.
정부와 경제	2.6	8.5	10.1	12.1	
소비자 경제	6.1	6.2	5.3	1.9	
소비자 교육	9.0	7.9	8.3	6.1	
기업 경제	17.8	16.7	15.8	14.9	

주: 1) 1994년 이전 자료는 Walstad(2000)를 참조하였음.

□ <표 11>에서 경제 내용이 포함된 경제 관련 과목의 수강비율은 학습하는 경제 개념의 분량과 내용을 고려할 때 경제 과목의 수강비율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된 바 있음.<sup>29)</sup>

- 참고로, 경제 관련 과목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준 기업경제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주로 이수하는 것으로 조사
- 소비자 경제 교육은 소비자 주권(consumerism)이 한창 유행하던 1970년대 및 1980년대에는 비율이 15%에 달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사회과 과목별 이수비율을 보면, 1998년의 경우 미국 역사가 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 정부와 정치가 82%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고, 경제는 46%로 네 번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sup>30)</sup>

28)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의 경우 남부 및 서부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학을 수강하는 고교 졸업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29) Walstad & Rebeck(2000)는 소비자 교육은 사회, 가정, 기업 관련 내용으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어서 소비자 관련 교육이 다루는 미시 경제학의 개념과 내용의 깊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식 경제학 교육의 대체제가 될 수 없음을 강조. 다시 말하면 <표 11>의 경제 관련 과목의 수강 규모는 경제 과목 수강 규모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표 12〉 고등학교 졸업생의 사회 과목별 이수 비율(%)<sup>1)</sup>

	1982	1987	1990	1994	1998
경제(0.5) <sup>2),3)</sup>	24.1	29.4	43.6	43.9	45.8
미국 역사(1.0)	81.5	89.5	91.2	94.8	90.5
미국 정부와 정치(0.5)	62.2	72.0	77.4	78.0	81.2
세계사(1.0)	36.3	42.6	51.9	59.4	60.2
서양사/문화(0.5)	11.4	9.8	10.3	12.1	9.1
사회학/심리학(0.5)	32.4	33.6	32.6	31.8	32.7
지리(0.5)	16.0	15.2	21.4	24.4	24.5

주: 1) Walstad(2000)에서 재인용

- 2) ( )안의 수치는 해당 과목에서 ( )안 규모의 수업단위를 수강하여야 과목수강자로 간주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즉 경제의 경우 0.5단위 이상 수강한 학생의 비율이 45.8%임.
- 3) 미국의 1.0은 우리나라 수업 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통상적으로 1년간 35주(수업 기간) 매일 수업을 받는 것과 동일하므로 총 175(35주×5일)시간을 듣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결국, 경제학 과목의 이수 단위 0.5는 수업시간이 87.5 시간이므로 우리의 단위수로 다시 환산하면 5.1단위와 같음. 이는 현행 심화선택과목인 '경제' 과목의 6단위와 유사한 수치를 보임. 종합하면, 미국에서 경제학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면, 최소한 우리나라의 심화선택 '경제' 과목과 같은 학습량을 배우는 것과 유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자료: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2001).

- 미국의 경우, 지리 과목의 수강비율은 경제학 과목의 절반을 조금 넘는 약 24% 정도를 기록하고 있음.

## (2) 경제교육의 교과과정 체계

□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전국 공통의 교육과정을 규정한 기준은 NCEE가 경제학자와 교사들로 구성된 팀(task force)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음.

-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제학 교육의 기본 내용과 각급 학교 에서 학습시켜야 할 수준을 제시한 자료로서 'A Framework for Teaching the Basic Concepts'(Framework)와 '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Standards)가 있음.

- 1997년 발간한 Standards는 1984년 제정된 Framework가 기초가 되었으며, 경제학 과목의 Standards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다른 사회 과목도 국가 차원의 내용 표준 체계를 작성한 것에 기인

- 따라서 Standards는 이전에 작성한 Framework를 바탕으로 재작성된 것이며,

30) U.S. Department of Education(2001),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Standards가 제시하는 주요 영역 체계는 기본경제문제, 미시경제, 거시경제(국제경제 포함)이며, 내용 체계는 기본개념, 경제적 추론, 성취수준으로 구성

\* Standards가 제시한 표준 항목은 모두 20개<sup>31)</sup>로 구체적인 경제개념의 내용 체계는 <표 13>과 같음.

- NCEE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각 단계별로 수준에 맞게 경제교육의 기준이 되는 Standards 작성을 주도하는 등 80여 종류의 다양한 경제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경제교육 담당 교사들을 교육
  -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소비자, 저축자, 투자가, 시민, 생산 활동의 구성원, 글로벌 경제의 적극적인 책임을 지닌 주체)을 계발시키는 노력을 경주

#### <표 13> NCEE Standards 자료의 내용 표준

주: <http://www.ncee.net/ea/standards> 참조.

- 경제교육을 위해 교사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이 증명되었기에 미국 경제 교사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중점
  - 연간 12만명의 교사 교육을 실시하며, 이밖에도 경제교육 캠페인(Campaign for Economic Literacy), 학생대상 금융지식 콘테스트, National Teaching Awards 등을 주관함.
- 그러나 Standards 자료가 갖는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음.
- Hansen(1998)은 Standards가 원리 중심(principle-based)으로 작성되어 있어 다소 추상적 기술이 많아 교사들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을 까를 우려<sup>32)</sup>
    - 또한, 다른 사회 과목들의 교과 과정 기준이 주제(topic) 또는 실제지식(factual knowledge)에 초점을 맞춰 작성되고 있으나, 경제학 Standards만이 원리이해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통합형 수업이 곤란하며 경제학을 따로 학습시키든, 아니면 통합교과로 학습시키든 사회 과목 교사들은 경제학이 다른 사회과목에 비해 어렵다고 느끼게 된다고 함.

31) Framework에서는 22개의 표준적 경제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32) Hansen W. Lee(1989), 'Principles-based Standards: On the 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Spring.

표 준	주요 개념
Scarcity	선택, 소비자, 생산자, 재화와 서비스, 희소성, 기회비용, 인적 자원, 자본, 생산요소, 기업가, 투자가, 기업가 등
Marginal Cost/Benefit	의사결정, 이윤동기, 비용, 수익, 한계분석, 이윤, 이윤극대화, 비용/편익분석 등
Allocation of Goods & Services	경제제도, 시장구조, 수요, 공급, 명령경제, 시장경제, 전통경제 등
Role of Incentives	선택, 인센티브 등
Gain from Trade	무역장벽, 바터제도, 수출, 수입, 환율 등
Specialization & Trade	분업, 생산, 특화, 부존자원, 무역의 이득, 상대가격, 거래비용, 생산요소, 완전고용 등
Markets: Price & Quantity Determination	시장구조, 시장, 최저가격, 가격안정, 수요량, 공급량, 상대가격, 환율 등
Role of Price in Market System	비가격경쟁, 최저가격, 가격안정, 수요와 공급의 결정요인.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 가격 상한제, 대체재, 가격 등
Role of Competition	시장구조, 비가격경쟁, 경쟁 정도 등
Role of Economic Institution	법적/사회적 체계, 저당, 차입, 이자율, 노동조합, 기업의 법적형태, 시장경제의 법적기초, 비영리 조직, 재산권, 은행, 경제제도 등
Role of Money	교환, 금전 관리, 화폐공급, 현금, 통화의 정의, 금융, 돈의 특성, 돈의 흐름 등
Role of Interest Rates	이자율, 금융정책, 실질/명목, 위험, 투자, 저축 등
Role of Resources in Determining Income	인적자원, 파생수요, 기능적 소득분배, 노동, 노동시장, 소득의 개인적 분배, 임금, 총수요, 총공급 등
Profit & the Entrepreneur	조세, 비용, 생산비용, 기업가, 위험, 비용/편익 분석, 혁신, 기업가 정신, 투자가 등
Growth	인센티브, 이자율, 기회비용, 기술변화, 목표의 상충관계, 인적자원, 집약적 성장, 투자, 물적자본, 생산성, 위험, 생활수준, 경제적 효율, 경제적 형평, 경제적 자유, 경제성장, 경제적 안전, 투자행위, 기업운영, 생산요소, 건강/영양, 저축자, 저축, 주식시장 등
Role of Government	외부성, 소득, 자연독점, 소득재분배, 정부역할, 조세, 이전소득, 채권, 이전지출, 소득분배, 소득세, 경쟁제도, 독점, 긍정적/부정적 외부성, 비청산 시장, 재산권, 공공재, 규제, 정부지출, 정부수입 등
Using Cost/Benefit Analysis to Evaluate Government Programs	비용/편익 분석, 이익집단, 무역장벽 등
Macroeconomy; Income/Employment/Prices	GDP, 거시경제 변수, 경상 GDP, 일인당 GDP, 잠재 GDP, 실질 GDP, 경기변동 등
Unemployment & Inflation	실업 형태, 인플레이 원인, CPI, 디플레이션, 노동력, 실업,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
Monetary & Fiscal Polices	인플레이션, 국가채무, 중앙은행 역할, 할인율, 예산, 재정정책, 금융정책, 공개시장조작, 준비금 제도, 재정적자, 중앙은행 제도, 재정흑자, 인플레이 원인 등

(3) 사회과 교사의 경제학 지식 정도

- 미국 사회과목 교사들의 경우, 경제학을 몇 과목 정도 수강하였는가에 대해 절반 정도가 3과목 이하를 수강하였다고 응답하고 있음.
  - 경제학을 수강한 과목 수의 평균값인 2.97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Walstad(2001)는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효과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5 내지 6개의 경제학 과목 수강이 필요함을 주장
  - 또한 졸업한 이후 경제학 과목에 대한 연수 교육 확충을 통해 경제학 지식과 능력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표 14〉 고교 사회과 교사들의 경제학 이수 과목수

구성비 (%)	0과목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	6과목	7과목+
100.0	12	18	23	16	12	6	4	9

자료: Walstad(2001) 재인용(Mean = 2.97, Median = 2.00)

## 2. 일본의 학교 경제교육 실태

(1) 교육과정에서 경제 과목의 위상<sup>33)</sup>

- 중학교의 경제교육은 사회과의 공민분야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과는 지리분야, 역사분야, 공민분야로 구성됨.
  - 공민분야는 일본 헌법·국내정치·국제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중학생이 공통으로 학습하는 체제

〈표 15〉 일본 중학교 과목별 수업 시수

33) 일본의 교육과정은 우리와 유사하게 문부과학성이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이나 교육과정의 기준으로 공시하는 학습지도요령에 기초하여 편성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교육과정이 편성됨.

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외국어	합계
1	140	105	105	105	105	980
2	105	105	105	105	105	980
3	105	85	105	85	105	980

주: 문부과학성

□ 고등학교에서도 경제 과목이 독립교과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사회과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일본 고등학교의 사회과는 지리·역사 교과와 공민 교과로 구분되며, 공민 교과는 다시 ‘현대사회’, ‘윤리’, ‘정치·경제’의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sup>34)</sup>

- 이러한 체계 하에서 경제교육은 공민과의 ‘현대사회’ 과목의 경제 분야와 ‘정치·경제’ 과목의 경제 분야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음.

- 일본 고등학교에서는 세계사 A와 B 가운데 한 과목, 또는 지리 A, B와 일본사 A, B 가운데 한 과목을 필수로 선택할 수 있음.

- 한편, 공민 교과의 경우에는 ‘현대사회’ 과목 또는 ‘윤리’와 ‘정치·경제’를 한 세트 하에 필수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sup>35)</sup>

### <표 16>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목 단위수

주: 각 과목의 수치는 단위수이나, 일본은 우리의 단위수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즉 1단위란 50분 수

34) 우리나라의 일반사회에 해당하는 교과와 유사한 편제가 일본의 경우는 공민이라고 할 수 있음.

35)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었던 고등학교 교육과정(보통 10년 단위)에서 경제 분야는 ‘현대사회’(4단위)와 ‘정치·경제’(2단위)에서 다뤄지고 있음. 그런데 교육과정 상 ‘현대사회’ 4단위를 필수로 전원 이수하게 하거나, ‘윤리’와 ‘정치·경제’를 세트 하에 합한 4단위를 택하여 전원이 필수로 이수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고교생은 어떤 식으로든 경제를 배우는 체계이었음.

한편, 일본의 국립대학 제1차 시험에 해당하는 ‘센터 시험’에서 ‘현대사회’ 선택자는 수험생 전체의 1.5% 내외, ‘윤리’, ‘정치·경제’는 7%로 둘을 합쳐도 10%를 넘지 못하였음. 국립대학 제2차 시험에서 ‘정치·경제’를 시험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대학은 히토쓰바시 대학 등 극소수이고 도쿄대, 교토대 등 주요 대학에서는 입시과목으로 설치하고 있지 않음. 자세한 논의는 新井明(1995), ‘日本高等學校經濟學習の現狀と課題’, 日本經濟教育學會(한국경제교육학회 번역)를 참조하였음.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도 최근 크게 변하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음. 카나카와(神奈川)현 에비나 고등학교(縣立)의 카지야야(梶ヶ谷) 교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주변 학교나 정보에 의하면 고교생들의 1/3은 ‘정치·경제’를, 나머지 2/3가 ‘현대사회’를 선택한다고 함. ‘정치·경제’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대학 시험 과목으로 채택하지도 않으며, 가르치기도 배우기도 어려운 과목이라는 사실임. 나아가 국립대학 입시에서 요즈음 문과계는 3과목을 보는데 주로 국어, 영어, 사회(주로 세계사)이며 이과계는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함. 한편, 사립대학은 2과목(국어, 영어),만을 보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함.

지리·역사						공 민		
세계사A	세계사B	일본사A	일본사B	지리A	지리B	현대사회	윤리	정치·경제
2	4	2	4	2	4	2	2	2

업을 매주 1회(총 35주)하는 것을 의미함. 우리나라와 동일한 개념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위 표의 해당 교과목의 단위수에 2배를 하면 됨.

- 이와 같은 교육과정 체계에서 학교 경제교육에 있어 경제수업이 사회과목 가운데 차지하는 중요성을 사회과목 수업시간 중 경제수업시간 규모로 파악해 볼 수 있음.
- 전국 공통으로 학습하게 되는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가운데 경제 분야의 단원 구성 및 수업 시간을 보면 사회과목의 전체 단원 수는 11개로 그 중 지리와 공민이 각각 3개 단원을 차지하며, 역사는 5개 단원임.
  - 역사는 전체 사회 과목 수업 시간 중 약 46%를 차지하며, 지리와 공민은 각각 27%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 분야 수업시간은 공민시간의 33%로 전체 사회과목 수업시간의 9% (27/295)로 조사되었음.

〈표 17〉 중학교 사회과목 교육과정상 단원 구성 및 수업 시간

구분	합 계		지 리		역 사		공 민			
	단원	수업 시간	단원	수업 시간	단원	수업 시간	공민 소개		경 제	
							단원	수업 시간	단원	수업 시간
중1~3학년	11	295	3	80	5	135	3	80	1	27

주: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의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참고로 작성

\* 단위수로 환산할 경우, 중학교 과정에서의 경제 분야는 1.5단위에 불과해 지리 4.6단위와 역사 7.7단위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sup>36)</sup>.

- 참고로, 중학교 3학년 공민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학교 수업에서 경제 내용에 투입하는 수업 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20시간 내외의 시간을 할애하

36) 일본의 경우 1년 35시간을 1단위로 정의하나, 이를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실질적으로 2단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따라서 지리 과목의 80 수업시간은 2.3단위(80/35)이고 이를 우리나라와 동일한 수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2배를 하면 4.6단위가 됨. 마찬가지로 역사는 3.8단위(135/35)이고 이를 2배한 7.7단위가 됨.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중학교 3년 기간 동안 경제 단원의 비중이 수업 시간수로 21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교학사가 제작한 중3 사회 과목의 교사용 지도서에는 실제 수업 투입 시간을 19시간으로 할애하고 있어 단위수로 환산하면, 일본에 비해 다소 낮은 1.1단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의 경우, 수업 시간을 단위수로 환산하기 위해 한 학기당 17시간을 1단위로 계산하였음.

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8〉 중학교 공민과 교사들의 수업 시수

구 분	15시간 미만	15 ~ 19시간	20 ~ 24시간	25 ~ 29 시간	30시간 이상
국 립	12.5	37.5	12.5	25.0	12.5
공 립	15.6	33.3	26.2	19.9	5.0
사 립	0.0	5.9	17.6	41.2	35.3
합 계	13.9	30.7	24.7	22.3	8.4

주: 2003년 11월에 조사한 결과로서 近畿지방(시가, 교토, 오사카, 효고, 나라, 와카야마 등) 교사 171명을 대상으로 분석. 자세한 내용은, 子どもの經濟教育研究會(2004), '經濟教育の現状と課題'를 참조

□ 고등학교는 학교마다 필수와 선택과목에서 차이<sup>37)</sup>가 있는 관계로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나 특정 학교의 사례를 통해 유추하는 방법을 원용할 수 있음.

○ 카나카와 현의 에비나(海老名)<sup>38)</sup> 고등학교를 예로 들어 설명하여 보면, 필수 과목으로 '세계사 A'와 '현대사회'를 선택

-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에비나 고등학교는 1학년에게 '지리 A'와 '현대사회'를, 2학년에게는 '일본사 A'와 '세계사 A'를, 3학년에게는 '일본사 B'와 '세계사 B'를 가르치고 있음.

○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3학년 전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지리·역사 교과와 공민교과의 단원수를 문부과학성의 교육과정 내용에서 파악한 후 이를 수업시간 수로 환산하였음.

- 교육과정에는 해당 교과의 단원수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교과의 수업 시수는 해당 교과의 단위 수에 단위시간(35시간)을 곱함으로써 산출할 수 있음.

〈표 19〉 지리·역사 및 공민 교과의 단위/단원/시간: 에비나 고교

37) 지리·역사 교과 및 공민 교과를 망라한 총 9개 과목 가운데 '세계사'와 '현대사회'가 필수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어떤 학교는 '윤리'와 '정치경제'를 필수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대사회'를 필수로 하는 경우를 통해 일본 경제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38) 대표성을 갖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일본의 경제교육 현상이나 실태를 알 수 있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음.

	합 계	지리 A	세계사 A	세계사 B	일본사 A	일본사 B	현대사회	
							경제외	경제
단위수	16	2	2	4	2	4	2	
단원수	25	2	3	5	4	7	3	1
시간수	560	70	70	140	70	140	52.5	17.5

주: 1) '현대사회' 과목의 단원수를 중단원 기준에 의해 수업시간 수로 환산하여도 큰 차이는 없었음.  
 2) 만일 '정치·경제' 과목을 선택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면, 경제 내용이 총 10개 중단원 가운데 4개를 차지하고 있어 28시간 수업하는 셈임.

□ <표 19>에서 보듯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경제 분야의 수업시간은 다른 과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경제 분야 수업은 17.5시간<sup>39)</sup>에 불과하며, 이는 사회과 수업시간의 3.1% (17.5/560)에 해당함.

## (2) 경제교육의 교과과정 체계

□ 앞서 보았듯이 일본의 경제교육은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공민', 고등학교 공민의 '현대사회' 및 '정치·경제'에서 경제 분야를 다루고 있음.<sup>40)</sup>

- 초등학교는 3학년부터 사회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각 학년마다 경제 분야를 다른 사회과목과 통합시켜 가르치고 있음.
  - 3학년과 4학년의 경우, '지역의 생산과 판매'라는 단원에서 일과 직업에 대한 내용과 생산과 판매에 의한 유통 개념을 학습
  - 5학년의 경우, '산업'이라는 단원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부족한 상품의 수입 등 무역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음.
  - 6학년의 경우,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과 세금에 관한 경제 내용을 학습

## <표 20> 일본의 사회과 교과 구조

39) 이는 우리나라의 단위로 환산할 경우 1.3단위에 해당

40) <http://www.mext.go.jp>

(文部科學省 홈페이지 참조)

학교	학년	시수	과목				관련교과	
소학교	1	102	생활과				도덕	종합 학습
	2	105						
	3	70	사회과	지역사회(공공시설이용, 생산/소비 활동, 지역의 변천, 지역개발)				
	4	85		일본의 산업과 무역, 국토개발				
	5	90		역사, 정치, 국제협력, 정부의 역할				
	6	100						
중학교	1	105	사회과	역사 분야	지리 분야			
	2	105						
	3	85		공민 분야(정치, 경제, 사회문화),				
고등학교	1	단위	지리·역사 분야			공민 분야		
	2		세계사A,B	일본사A,B	지리 A,B	현대사회	정치경제	윤리
	3		6	6	6	2	2	2

주: 1단위는 35시간 수업 시간

○ 중학교는 1, 2학년의 지리·역사 분야와 3학년의 공민 분야를 구분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공민 분야의 경제에 관한 내용은 공민 교과를 통해 시장경제와 정부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공민교과서(동경서적)의 경제는 5개 단위 가운데 제4장 '우리들의 생활과 경제'와 제5장 '지구사회와 우리들'의 일부에서 다루고 있음.

\* 제4장은 경제활동, 시장경제와 금융의 역할, 정부의 역할, 일본경제의 과제가 주요 구성 항목임. 반면 제5장은 자원·에너지 등 환경 문제, 인구·식량문제, 지역경제의 동향이 경제 단위에 해당

〈표 21〉 일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제 분야 교과서 내용 체계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 교과	현대사회 교과	정치·경제 교과
현대사회와 우리의 생활 현대 사회의 발자취	현대를 사는 우리의 과제 환경, 자원, 과학기술, 종교, 풍요와 복지 등에 대한 조사	현대의 정치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일본 헌법의 기본 이념 정치기구와 정치의 운용 일본 정치의 실태와 문제 국제정치와 일본
인간존중과 일본 헌법 개인과 사회생활 인권과 일본 헌법 인권과 공생사회	현대 사회와 인간 현대사회 특질과 우리 생활 현대사회와 청년의 삶 보다 잘사는 것을 찾아	현대의 경제 사회와 경제발전 현대경제의 기본 조직 현대경제의 기본 틀
현대의 민주정치와 사회 현대의 민주정치 나라 정치의 틀 지방의 정치와 자치	현대 경제와 국민복지 경제의 기본 틀 정부의 경제적 역할 변화하는 일본 경제 풍요로운 생활의 실현	현대사회의 과제 일본의 정치·경제 국제사회의 정치·경제
우리의 생활과 경제 우리 생활과 경제 시장경제와 금융 국민생활과 복지	일본 헌법과 민주정치 민주정치란 일본 헌법과 기본 인권 국회·내각·재판소 정치참여와 민주정치	-
지구사회와 우리 국제문제와 지구시민 국제사회와 세계 평화	국제사회와 인류의 과제 국경을 넘는 경제 무국경화와 지역 국제사회 성립과 전후의 동향 국제사회의 과제	-

자료: 東京書籍(2005), 『新しい社會 公民』, 東京書籍(2005), 『現代社會』, 一僑出版(2005), 『政治·經濟』.

- 고등학교는 공민 분야에서 ‘현대사회’(동경서적)와 ‘정치·경제’(히토쓰바시 출판)에서 경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현대사회’는 과거 4단위에서 2단위로 축소되었고, ‘정치·경제’는 2단위 시수를 배정받고 있음.

\*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현대사회’를 필수(2/3)로 채택하고 있으며, ‘정치·경제’는 약 1/3 정도의 학교가 필수로 선택

\* 두 과목 가운데 어느 한 과목을 필수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등학생이 경제 내용을 학습하고 졸업하는 셈이나, 두 교과 모두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1학년 공통사회의 경제 내용과 유사한 수준을 배우고 있음.

□ 일본 경제교육의 교과과정 상의 체계에서 나타나는 특징<sup>41)</sup>은,

○ 첫째, 경제내용에 투입하는 학습시간을 보면 일본의 중학교는 27시간(사회과 수업시간의 9%)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21시간(사회과 수업시간의 6.1%)으로 조사되어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았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본이 '현대사회'에서 경제내용을 17.5시간(사회과 수업시간의 3.1%) 배우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1 국민공통 과정에서 경제내용을 10시간(사회과 수업시간의 5.9%)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의 고등학교 학생은 경제 분야에 관한 내용을 약 17.5시간 정도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모든 학생들이 고1 과정에서 11시간 경제내용을 학습하고 고등학교 졸업생의 25%가 고2 또는 고3 과정에서 심화선택 경제과목을 학습하는 상황

○ 둘째, 제한된 지면에 경제 내용을 기술하는 관계로 경제 원리나 이론에 대한 기술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

- 이론적인 설명은 최소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용어 설명의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기술되고 있음.

○ 셋째, 세계사를 필수과목으로 많이 선택하는 특성과 연관지어 경제 분야의 내용도 세계 속의 일본의 역할을 강조

- 즉, 일본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직면할 국내외 문제를 다루는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이를 위한 일본의 노력과 국제적 공헌을 기술

○ 넷째, 경제 분야가 독립된 교과이지 않아 지면 분량이 적어 단순 기술과 시각자료의 제시라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평가활동이나 탐구활동 등은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음<sup>42)</sup>.

41) 우리나라 경제 분야 교과서와의 비교로 한정하였음.

42) 이 내용은 최병모 외(2004), '일본 교과서에서의 경제교육내용 분석', 학술진흥재단 제2차 연구용역 보고서를 참조하였음.

- 이는 시각자료, 정보독해 기능을 육성할 수 있는 자료는 포함되어 있으나, 내용과 사례 수는 극히 부족하여 학생들의 종합적인 판단력과 충분한 경제 학습이 이뤄지기에는 한계

○ 다섯째, 경제교육 내용 체계상 일본은 '현대사회'나 '정치·경제' 과목 모두 미시와 거시경제 분야를 다루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고1 국민공통 과정에서 거시경제 분야만을 다루고 있음.

(3) 경제 교사의 공급과 경제학 지식 정도

□ 일본의 과목별 담당 교원들의 구성비(2004)를 보면, 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국, 영, 수 등 주요 과목은 12~1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민 교사는 약 절반 정도인 6.2%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중학교의 경우, 지리·역사 및 공민 분야를 포함하는 사회 교사들의 비중은 11.5%로 조사되었음.

- 교원수는 중학교가 248,264명, 고등학교는 247,796명이었음.

<표 22> 담당 교과목별 교원수 비중(2004): 일본

중학교	사회		과학	국어	영어	수학
	11.5		11.2	13.1	13.1	15.3
고등학교	지리·역사	공민(윤리)	과학	국어	영어	수학
	10.2	6.2	13.0	12.7	12.9	12.1

주: 고등학교 교원수는 보통 교과(우리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  
자료: 문부성 홈페이지 통계표

□ 참고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담당 과목별 교원 현황과 비교해 보면,  
○ 중학교의 경우, 사회교과의 교원 비중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약 2% 포인트 작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 고등학교 공민과 교사 비중에서 윤리교과 교사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작은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즉, 고등학교 교원의 비중을 보면, 일본은 사회 교과가 16.4%(타 교과는 평균적으로 12.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3.9%(타 교과 평균은 14.8%)임.

<표 23> 담당 교과목별 교원수 및 비중: 한국

중학교	사 회				과 학	국 어	영 어	수 학	합 계
	소 계	일반사회	역사	지리					
2003	9,919 (10.0)	5,525 (5.5)	2,835 (2.8)	1,599 (1.6)	7,943 (8.0)	13,686 (13.7)	10,968 (11.0)	11,608 (11.6)	99,717 (100.0)
2004	10,410 (10.2)	-	-	-	11,517 (11.3)	14,063 (13.8)	11,815 (11.6)	11,851 (11.7)	101,719 (100.0)
2005	10,399 (10.0)	-	-	-	11,942 (11.5)	14,325 (13.8)	11,942 (11.5)	11,820 (11.4)	103,835 (100.0)
고등학교	사 회				과 학	국 어	영 어	수 학	합 계
	소 계	일반사회	역사	지리					
2003	9,888 (12.9)	4,077 (5.3)	3,551 (4.6)	2,260 (3.0)	8,881 (11.6)	11,287 (14.7)	10,578 (13.8)	10,138 (13.2)	76,666 (100.0)
2004	10,581 (13.6)	-	-	-	8,906 (11.4)	11,462 (14.7)	11,815 (15.1)	11,242 (14.4)	77,835 (100.0)
2005	10,991 (13.9)	-	-	-	9,056 (11.4)	11,694 (14.8)	11,942 (15.1)	11,595 (14.6)	79,158 (100.0)

주: ( ) 속의 수치는 구성비를 의미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문교통계연보, 각년도.

○ 한편, 일반사회과 교원 수 비중(자료의 제약 상 고등학교의 경우만 비교 가능)을 보면, 일본은 6.2%(공민과 교사 비중)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3%임.

□ 한편, 일본의 공민 교과 교원들의 경제학 과목을 이수하는 정도와 경제학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충분한 분석이 불가능하였음.

○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중학교 공민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子どもの經濟教育 硏究會(2004)의 조사<sup>43)</sup>에 따르면, 공민 분야 교사들의 대학 및 대학원 전공과목을 서베이한 결과, 역사학이 24.6%, 경제학이 22.8%, 법학 13.5%, 교육학 12.3%, 사회학이 11.7%, 지리학이 9.9%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24> 중학교 공민과 교사들의 대학·'대학원 전공 비율(%)

역사학	경제학	법학	교육학	사회학	지리학	심리학	경영학
24.6	22.8	13.5	12.3	11.7	9.9	3.5	3.5

43) 고등학교 교사들의 전공별 교원수, 대학 시절 경제학을 이수한 정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음.

주: 子どもの經濟教育研究會(2004), '經濟教育の現狀と課題'.

## IV. 맺음말

□ 이제까지 제한된 자료 범위 내에서나마 체계적으로 한국·미국·일본 세 나라의 청소년 학교 경제교육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음.

○ 이하에서는 세 나라의 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실태를 비교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학교 경제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1. 중·고등학교 경제교육의 한·미·일 실태 비교

1)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경제과목의 위상

□ 한·미·일 3국의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상호 비교하기가 곤란하나 최대한 비슷한 조건 하에서 비교하고자 함.

○ 한국과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의 교육당국이 제정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있는 반면 미국은 중앙정부(연방정부)가 교육행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주정부가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전국적인 통일성이 담보되기 어려움.

○ 미국의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진로결정 및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게 짜여져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생의 취향에 따라 과목 편중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은 중학교에서는 공통과목을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을 가르치나 고등학교의 과목개설에 있어서 사회과의 모든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과정도 사실상 공통과정과 유사함.

-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과정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절충형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선택과목은 대부분 학교가 개설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진정한 선택과목은 아님.

- 모든 학생이 경제 분야를(다른 사회과목도 마찬가지로) 학습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민공통 기본과정과 유사한 일본의 경제 분야 수업시간과 우리나라의 국민공통 기본과정 경제 분야 수업시간을 비교해 보면,
  - 중학교 과정은 일본이 27시간으로 우리나라의 21시간보다 30% 정도 많으며 고등학교 과정은 일본이 17.5시간 이상<sup>44)</sup>으로 우리나라의 10시간에 비해 1.7배 이상 많음.
  -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의 심화선택에 해당하는 경제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 분야에 흥미를 가진 학생이 보다 심화된 학습을 할 기회가 없음.
- 미국은 국민공통 기본과정이 없이 선택의 폭이 넓은 교과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고등학교 경제과정은 우리나라의 심화선택 과정과 비교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경제과목을 5단위 이상 수강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생의 50%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6단위에 해당하는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25% 수준임.
  - 한편 미국에서는 경제과목이 법에 의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K-12)까지 학생들이 배워야 할 9개 핵심과목(경제, 시민과 정부, 역사, 지리 등 4개 사회과목 포함)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15개 주에서는 경제를 필수과목으로 선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사회과목별 수강비율에 있어서 1998년의 경우 역사 91%, 시민과 정부 81%, 세계사 60%에 이어 경제가 46%에 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생의 사회과목별 수강비율은 지리 관련 과목(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과 역사 관련 과목(국사, 세계사)이 모두 경제의 3배에 달하며 과목별로도 한국 근·현대사와 한국지리가 각각 경제의 2.8배, 2.4배에 달함.
  -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의 국민공통 기본과정에 해당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1/2은 경제에 대한 소양을 거의 갖추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44) 일본은 고등학교의 약 2/3가 현대사회(경제수업 17.5시간)를 필수과목으로 약 1/3이 정치·경제(경제수업 28시간)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고 함.

- 이를 종합해보면 한·미·일 3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경제 분야의 위상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각국에서 경제 분야의 사회과목 중 상대적 위상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미국에서 사회과목 중 경제 분야의 중요도(사회과목별 수강비율)는 우리나라보다 높으며, 일본의 경우도 다른 사회과목에 비해 경제 분야의 중요도(사회과목별 수업시간)가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음.

## 2) 경제교육의 교과과정 체계

- 경제교육의 교과과정 체계에서 우리나라는 국민 공통과정과 심화선택 과정으로 나뉘어 각 과정별로 국가표준(national standards)을 갖추고 있어 형식적 측면에서 미국보다 통일적·체계적이라 할 수 있음.

- 반면, 미국은 중앙정부가 교육행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NCEE가 주관 이 되어 경제학자, 교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경제과정의 국가표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표준의 개편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광범위한 참여에 바탕을 두고 있음.

- 미국에서 경제교과 내용 표준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의 교과과정 설계과정과 유사하게 이루어지나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범위가 넓고 준비기간도 보다 충분하게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 NCEE가 제정한 경제학 학습의 표준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벤치마킹 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제학 학습표준은 다른 사회과목에 비해 지식습득 보다는 원리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민 공통과정을 운영하는 체제라 할 수 있으며, 전국 통일 기준의 학습지도 요령을 통해 교과과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교육과정 체제하에서 경제교과서 내용은 원리 이해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토픽(일본의 국제사회의 역할) 또는 지식습득 중심으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 분야 교과과정의 표준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원리를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수업시간이 31시간에 불과하여 많은 경제원리를 가르치기 어려운 실정임.

- 한편 3/4에 달하는 학생이 국민공통과정의 경제 분야만을 학습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국민공통기본의 완결성이 요구되나 경제교과 영역에서 금융 및 재정부문이 미흡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 3) 경제 담당 교사의 공급 및 경제 분야 지식 정도

□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담당 교사의 공급규모를 보면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원 가운데 사회과 교원의 비중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음.

- 중학교의 경우 일본의 사회과 담당 교원이 전체 교원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11.5%(2004년)이나, 우리나라는 10.0%(2005년)로 집계되었음.

-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일본의 사회과 교원 비중이 16.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3.9%로 나타났음.

□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독립된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고등학교의 약 40%만 경제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제 담당 교사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사료됨.

□ 경제과목이 다른 과목에 비해 가르치는 것은 물론 배우기도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 따라서 경제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역할이 학생들의 경제과목에 대한 관심, 흥미, 선택에 중요한 요소<sup>45)</sup>

- 3개국 모두 경제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대학시절 경제 분야 이수 과목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sup>46)</sup>

- 미국의 경우, 경제학 과목을 3과목 이하로 수강한 교사의 비율이 70%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조사에 근거한 자료이지만 중학교 교사들의 경제학 이외 전공자 비율이 80%에 이르고 있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담당 교사 중 대학에서 경제과목을 전혀 수강하지 않은 교사의 비율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45) 교사들의 경제학에 대한 지식의 깊이는 학생들에게 경제이론이나 원리를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역량과 비례한다는 점에서도 교사의 역할은 중요

46) Walstad(2001)에 따르면 경제학 과목을 적어도 5 내지 6과목을 수강해야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한 점에 기준을 둔 것임.

- 한편 교사들에 대한 경제교육에 있어서 미국은 NCEE가 매년 12만명을 교육시키는 한편 교사들을 위한 교재개발 및 효과적인 교육방법 공유 등의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음.
- 사회과 교사들의 교원 현황과 경제담당 교사들의 경제학 이수과목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경제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이 충분히 배출될 가능성이 낮으며 상당한 경제학적 지식수준을 갖추고 교직에 진출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경제담당 교사의 공급을 확대하고 현재 경제담당 교사의 경제 분야 지식을 심화시키려면 교사 양성 체계의 개선과 졸업 후 재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함.

#### 4) 경제이해력 테스트로 본 학교 경제교육 성취 수준<sup>47)</sup>

- 한·미·일 3개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제이해력 테스트 결과에서 드러난 몇 가지 특징적 현상과 경제 분야 학습 성취수준을 보면
  - 첫째, 우리나라 고교생들은 미국 및 일본의 고교생에 비해 경제 이해력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가 55.7점(일본은 57.3점)을 보인 반면 미국은 61.2점을 기록
  - 둘째, 경제를 수강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과의 점수 차이가 한국과 일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미국에서는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났음.
    - 우리나라는 그 격차가 3.0점(일본은 비수강자의 점수가 0.5점 더 높은)의 차이를 보인 반면, 미국은 16.7점의 큰 차이를 보였음.
  - 셋째, 경제이해력의 점수에 있어서 경제과목 수강자는 미국이 더 높게, 비수강자는 우리나라가 더 높게 나왔음.
    - 즉, 경제과목 수강자간 비교에서는 미국이 6.6점 높은 반면 비수강자 비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7.1점 더 높게 나타났음.

47) 유정호(2003) 참조.

<표 25> 분야별 경제 이해력

영역	한국(2002년)			미국(2000년)			한·미간 편차		
	평균	수강자	비수강자	평균	수강자	비수강자	평균	수강자	비수강자
기초개념	60.0	62.9	58.6	67.3	71.3	50.0	-7.3	-8.4	8.6
미시경제	55.7	57.3	55.0	62.1	64.6	51.0	-6.4	-7.3	4.0
거시경제	54.2	55.5	53.6	56.1	59.1	43.1	-1.9	-3.6	10.5
국제경제	46.8	50.0	45.4	53.8	56.0	44.1	-7.0	-6.0	1.3
<b>합계</b>	<b>55.7</b>	<b>57.7</b>	<b>54.7</b>	<b>61.2</b>	<b>64.3</b>	<b>47.6</b>	<b>-5.5</b>	<b>-6.6</b>	<b>7.1</b>

주: 1) 경제수강자에 대한 의미는 한국은 심화선택 '경제' 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말하며, 일본은 공민분야의 '현대사회' 및 '정치·경제'를 미국은 '경제학' 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말함.

2) 참고: 일본(2002)의 경우, 평균점수는 57.3점(수강자 57.2, 비수강자 57.7)으로 나타났음. 조사표본은 한국 2,658명, 미국 3,955명, 일본 657명이었음.

자료: 유정호(2003), '고등학교 경제교육과 학생들의 이해력', 『경제교육』.

○ 넷째, 경제 분야별로 볼 경우 한국이나 미국이나 고등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분야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양국 모두 기초개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국제경제는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 다섯째, 문제의 난이도별<sup>48)</sup>로 본 고교생들의 경제이해력은 수준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미국 고교생들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난이도별 점수 격차를 보면, 단순지식은 -2.9점, 이해력은 -5.5점, 응용력은 -6.5점으로 우리 고교생들의 점수가 모두 낮게 나왔음.<sup>49)</sup>

○ 여섯째, 40개의 개별 문항들의 정답률을 비교할 경우 경제를 수강한 학생과 수강하지 않은 학생 간의 점수 차이에 흥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음.

48) 유정호(2003)는 이를 인식수준별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즉, 단순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이 40문항 가운데 7개,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11개, 응용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22개로 구성되어 있음.

49) 우리나라와 미국 고교생들의 난이도별 테스트 결과는 다음의 표를 참조

	단순지식	이해력	응용력
문항 수	7개	11개	22개
한국 고교생 점수	61.4	58.9	52.2
미국 고교생 점수	64.3	64.4	58.7
한미간 점수 격차	-2.9	-5.5	-6.4

주: 유정호(2003), p.13에서 재인용.

- 우리 고교생의 경우 전체 40문항 가운데 17개 문항에서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정답률이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의 정답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 미국의 고교생은 모든 문항에서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정답률이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의 정답률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임.
- \* 즉, 미국 고교생들은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정답률이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의 정답률을 모두 상회하고 있어 기대한 결과를 보였음.

□ 경제이해력 테스트에서 나타난 내용을 종합하면,

- 독립된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테스트 결과를 보면 미국이 한국보다 6.6점 높고, 수준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미국과 한국간의 점수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독립된 경제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미국의 학습 성취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보임.
-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심화선택 경제과목 수강생과 비수강생 간 점수격차가 별로 없는 것을 감안하면 심화선택과목 수강생의 학습 성취 수준에 의구심을 갖게 됨.
- 그러나 경제과목 비수강생의 경우 국민공통 기본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경제학습을 한 우리나라 학생 점수가 미국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 국민공통 기본과정 경제 분야는 상당한 학습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2. 학교 경제교육에의 시사점

□ 체계적 경제교육 실태 조사·연구의 필요성

- 교육 관련 통계자료를 집대성하고 있는 문교통계연보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일부 자료는 해석과 활용에 주의가 요구되며 경제교육 실태 파악에 필요한 일부 정보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예를 들면, 국민공통 기본과정 담당교사의 경제 분야 소양 정도와 심화선택 과정 담당 교사의 경제 분야 소양 정도, 경제담당 교사의 공급 관련 정보, 학생들의 경제 분야 학업성취도 추이 등 주요 자료가 누락되거나 존재하지 않음.
- 조사·연구 대상도 중등경제교육 뿐만 아니라 대학의 경제교육 실태<sup>50)</sup>, 일반인들의 경제교육 실태, 경제교육 기관들의 실태 등으로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음.

□ 경제과목의 수업시간 및 심화선택 경제과목 개설 확대

- 국민공통 기본과정의 경우 경제 분야 수업시간 비중은 사회과 수업시간의 1/16(사회과중 일반사회가 1/4, 일반사회 중 경제가 1/4)에 불과한데 비해 지리분야의 비중은 경제의 4배, 세계사 비중도 3배에 달하는 등 미국, 일본에 비해 과목별 수업시간 비중이 적정하게 배분되고 있지 못하므로 보다 객관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 사회과목간 수업비중의 재조정 필요
- 미국의 경우 경제과목이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워야 할 9대 핵심과목(4개 사회과 과목 포함)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으며 15개 주에서는 경제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6개에 달하는 국민공통 기본과정의 사회과 분야와 9개에 달하는 선택과정 사회과 분야를 보다 단순화함으로써 경제 수업시간 확보 방안 검토 필요
- 심화선택 경제과목은 전체 고등학교의 41.6%만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불과 1/4만 수강하고 있으므로 경제과목 개설 고등학교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만일 경제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있는 고등학교의 절반 정도가 경제과목을 개설할 경우 약 400개 학교가 추가적으로 경제과목을 개설하게 됨으로써 고교졸업생의 경제수강자 비율을 44%<sup>51)</sup> 정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음.
- 국민공통 기본과정의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미시경제영역을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거시경제영역을 배우는 현재의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함.

50) Walstad(2001)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약 60%의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며 그중 40% 정도가 대학에서 경제학을 수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고등학교 시절에 경제학을 수강한 학생일수록 대학에서 경제학을 수강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음.

51) 한 학교당 경제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수는 약 182명(104,731명÷575개 학교)으로 나타났으므로 400개 학교가 추가로 경제과목을 개설할 경우 경제수강생이 약 72,840명 늘어나게 됨.

- 「사회과정 개정시안」 대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영역을 함께 다루는 것은 중학교 3학년 사회과 수업시간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학습내용이 두 배로 늘어나는 등 수업내용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경제 담당 교사의 경제 분야 소양 향상을 위한 경제교육 연수기회 확충

- 경제수업시간을 늘리고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공급확대가 관건인 바, 단기적으로는 현행 사회과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를 담당할 교사들이 4~5개의 경제 분야 과목을 수강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
  - 방학기간(여름 또는 겨울) 중 지방대학에 교사를 위한 계절학기 경제학 과정을 개설하여 여타 사회과목을 담당하던 교사들과 경제담당 교사들이 경제를 보다 충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소양을 쌓을 기회를 제공할 필요
- 경제담당 교사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사범대학의 일반사회과에서 경제교육과를 분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경제교육협의회의 학교 경제교육 지원 기능 강화

- 경제교육협의회는 2006년 발족한 조직으로서 1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 경제교육보다는 민간 경제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앞으로 교사연수, 교재개발, 학교 교과과정 제정 지원 등 학교 경제교육 지원 기능의 확충도 필요
  - 현재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의 4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경제교육센터가 각 지역의 교육청 및 대학 등 교육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경제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경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경제교육재단 설립 추진

- 위에서 제시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상당한 재원이 조달되어야 하나 교육 예산만으로는 경제교육에 대한 추가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과 정부의 보조금으로 다양한 경제교육 지원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기구의 설립이 필요할 것임.

## 참고 문헌

- 교과서 포럼(2005), '중·고등학교 <경제> 관련 교과서, 이대로 좋은가', 제2차 심포지엄.
- 교육과정평가원(2005),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원칙', 6월.
- 교육인적자원부(2003, 2004, 2005), 문교통계연보.
- 교육인적자원부(2005), '미국의 경제교육현황', 해외교육 정보 자료집.
- 금융감독원(2005), '금융이해력 측정 결과'.
- 김근영(2004), '청소년 경제교육의 현황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박명호(2005), '청소년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 신세린, 문용린, 임천순, 최병모, 남상준(1987), '해외경제교육 실태 조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연구원.
- 오영수(2005), '경제학 무엇을 얼마나 가르쳐야 할 것인가?: 중등학교 경제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경제교육학회』, 제12권 1호.
- 유정호(2003), '고등학교 경제교육과 학생들의 이해력', 『경제교육』,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재정경제부/KDI 경제정보센터(2005),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경제영역내용 검토 보고서', 용역보고서.
- 전국경제인연합회(2004), '선진국의 반기업 정서 현황 및 시사점'.
- 최병모, 김정호, 이미경(2005), '미국의 경제교육 내용체계 분석', 학술진흥재단.
- 최병모 외(2004), '일본 교과서에서의 경제교육내용 분석', 학술진흥재단 제2차분 연구용역 보고서.
- KDI 경제정보센터(2006), '초·중·고등학교 경제영역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 Hansen W. Lee(1989), 'Principles-based Standards: On the 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Spring.
- NCEE(2005), 'Survey of the State: Economic and Personal Finance Education in Our Nation's School in 2004', March.
- NCEE(2005), 'Survey of the States', March.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01),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Walstad(2001) B. William, 'Economic Education in the U.S. High Schools',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5, No. 3, Summer.

\_\_\_\_\_ (2005), Economic Education in U.S. High School, symposium paper presented at Tokyo sponsored by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enter,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_\_\_\_\_ & Ken Rebeck(2000), 'The Status of Economics in the High School Curriculum',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Winter.

子どもの經濟教育研究會(2004), '經濟教育の現狀と課題'.

金振榮(2000), '韓·日經濟教育の實態: 高等學校の教科書を中心に', 日本總合研究機構.

內閣府經濟社會總合研究所(2005), '經濟教育に關する研究會 中間報告書'.

新井明(1995), '日本高等學校經濟學習の現狀と課題', 日本經濟教育學會.

日本經濟教育センター(2006), '經濟教育に關する研究報告書', 3月.

조도근 외(2005), 『고등학교 경제』, (주)두산.

조화룡 외(2005), 『중학교 사회 3』, 금성출판사.

최병모 외(2005), 『고등학교 사회』, 대한교과서(주).

東京書籍(2005), 『新しい社會 公民』.

東京書籍(2005), 『現代社會』.

一橋出版(2005), 『政治·經濟』.

<http://www.mext.go.jp>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ncee.net/ea/standards> (NCEE 홈페이지)

<http://www.happyschool.or.kr> (이주호 의원 홈페이지)

<http://www.kiec.re.kr>(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http://plaza.snu.ac.kr/~socioedu>(서울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soci.maru.net/sub01-1.html>(한국교원대학교 홈페이지)

## <부록 1> 인천, 울진, 서울의 X, Y, Z 고교의 사회과 심화선택 개설 현황

- 인천광역시 Z 고등학교는 2학년 문과 학생들에게 '정치'와 '경제'가 선택 과목으로, 이과 학생들을 위해 '생활경제'가 교양 과목으로 개설 되어 있었음. 한편, 3학년은 학생들의 수능 과목과 연계시켜 3개 과목(한국지리, 한국근현대사, 사회문화)을 개설하고 있었음.
  - 2학년 과정에서 경제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3학년 과정에서는 개설되지 않고, 다만 수능 대비반을 위해 보충 학습 형태로 경제를 가르치고 있음.
  - 이 학교의 경우, 인문계 학생의 수능 과목 선택은 한국지리, 한국 근·현대사, 사회문화, 국사 과목의 순으로 나타났음.
  
- 울진군 Y 고등학교는 1학년 학생에게 국사를, 2학년 문과 학생에게 한국근현대사(1), 한국지리, 윤리를, 3학년 문과 학생에게 한국근현대사(2), 사회문화, 경제를 가르치고 있음. 이과 2학년 및 3학년 학생에게는 한국지리만을 가르치고 있음.
  - 수능 과목으로 Y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사회 과목은 한국지리, 한국 근·현대사, 윤리, 국사 또는 사회문화로 조사되었음.
  
- 서울의 X 고등학교는 2학년 문과 학생에게 경제, 법과 사회, 세계사, 한국지리를, 3학년 문과학생에게 사회문화, 한국 근·현대사, 경제지리, 정치 등을 개설하고 있음. 동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었음.
  - 한편, 이과 학생에게는 한국지리와 경제를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의 교사 수급을 고려한 때문임.
  - 이 학교의 경우, 수능 사회 탐구 과목으로 사회문화, 한국지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다른 학교와 유사하였음.
  - 그러나 수능 과목으로 경제 과목이 3번째 순서를 차지한 것은 타 고등학교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음. 오히려 3위인 한국 근·현대사가 4위로 랭크되는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었음.

## <부록 2> 경제교육협의회(NCEE: 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sup>52)</sup>

### □ 기관 개요

- 1949년 미국에서 청소년 경제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경제교육기구로서 경제계 및 교육계 지도자들의 협의체
  - 경제교육 전문가(교수), 교사, 기업인 등이 주요 회원이며, 회원들 간 경제 관련 보충교재, 수범사례, 체험교재의 개발 및 경제교육 방법론과 경험을 공유하고 경제교육 성과 평가 등을 수행하는 경제교육 민간기구
- 본부는 뉴욕에 있으며 미국 50개 주별로 지부인 州경제교육협의회(state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를 두고 300여개의 대학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대학 내 경제교육센터를 운영

### □ 재원별 예산 규모

- 2004년도 재원은 총 1,072만 8천달러(110억원 규모)로 이중 정부 교부금이 49.5%,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이 36.9%를 차지하고 있음.

<2004년도 NCEE 재원조달별 예산 규모>

정부교부금	기부금	교재판매대금	기타	총액(천\$)
5,308 (49.5)	3,960 (36.9)	1,234 (11.5)	226 (2.1)	10,728 (100.0)

주: ( )안의 수치는 구성비

자료: NCEE 홈페이지.

- 2004년의 지출 규모는 1,100만달러로 교사 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가 83.2%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교사를 위한 경제교육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52) 이 자료는 전경련(2004) 및 內閣府(2005)를 참조하였음.

- NCEE는 Excellence in Economic Education Act(2002)에 의거 정부로부터 2004년 150만달러의 교부금을 지원받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K-12)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개인금융 및 경제학에 대한 이해 증진 사업을 수행
  -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교부금 가운데 3/4은 州단위 및 지역경제 단체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한편, 교부금은 경제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의 배포, 경제이해력 및 금융이해력 테스트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활용
    - \*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및 교수학습 방법론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활용한 지원도 실시(교사 훈련 프로그램, 학교단위 학생 활동 프로그램, 경제교육 best practices 프로그램 등)

□ 주요 기능 및 활동

- 전국적으로 통일된 경제교육을 위해 학교 경제교육 내용 체계에 관한 표준을 제정
  - A Framework for Teaching the Basic Concepts
  - 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
- 초·중·고 경제교육 교사들을 위한 훈련 및 교육 자료의 체계적 제공이 주요 목표<sup>53)</sup>
  - 유치원에서 고등학교(K-12)까지 각 단계별로 학생들의 지적 수준에 맞게 개발된 50여 종류의 다양한 경제교육 자료 판매(초등용 11종, 중등용 9종, 고등용 23종, 금융교육 8종 등)
- 경제이해력 테스트를 격년 단위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경제교육 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미국 재무부 등과 협력하여 학생 대상 금융지식 테스트 등을 수행

---

53) We are redoubling our efforts to reach America's teachers — because investing in teachers has proven to be the most effective way to get into the heads and hands of the nation's young people.

- 연간 12만명에 달하는 교사연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연수업무는 National Association for Economic Educator라는 조직이 담당
  - 이러한 교사들을 통해 700만명에 달하는 초·중·고생들에게 경제교육
- National Teaching Awards/Annual Conference(지역 순회, 2006년 New York 개최 예정)의 실시